

지난해 무등기 준우승이후 상승세



1942년에 창단된 마산고는 2차례 팀이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8년에 재창단됐다. 2007년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후, 지난해 무등기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다.

몸 쪽 승부를 즐기는 에이스 황동진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으며, 김지훈을 비롯해 클린업트리오 문선엽·황동진·권유식이 파워 있는 타선을 구성하고 있다.

▲대표자 = 김진호 ▲감독 = 이효근 ▲선수 = 서지현, 권유식, 김민재, 황건현, 권용민, 김성용, 김지훈, 한슬기, 김동진, 김대우, 윤태용, 오승환, 김동환, 송승한, 황동진, 양원용, 전성우, 문선엽

김정훈 앞세워 3년만의 패권 도전



1973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7차례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야구팀으로 3년 만에 무등기 패권을 되찾기 위해 나선다. 지난해 회랑기 우승의 주역인 김정훈의 강속구를 앞세운 마운드에는 좌완 임기준, 사이드암 고재학이 버티고 있다. 찬스에 강한 좌타 임병현과 배팅능력이 뛰어난 슬라이더 김도현이 배치된 타선은 정교하고 파워가 장점이다.

▲대표자 = 이종효 ▲감독 = 최재영 ▲선수 = 김정훈, 손경진, 임기준, 최용석, 임병현, 천상현, 권정주, 고현우, 고재학, 양승철, 김지윤, 박준표, 엄석준, 이주호, 김도현, 이태호, 박인규, 정현진, 최수빈, 이창우, 유현규, 양현웅, 김승환, 황정호, 조민성, 김성욱, 서승우, 이진호, 박성우, 양구열

마운드 위력적… 무등기 다크호스



야구 불모지인 전남 동부지역의 고교야구 진흥을 위해서 1994년 창단된 야구부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무등기 다크호스를 자처하고 있는 순천 효천고는 높은 마운드가 위력적이다. 에이스 이태양은 190cm의 장신으로 변화구와 게임 능력이 뛰어나고, 좌완 장민익은 국내 최장신(207cm)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좋다. 특히 큰 키에서 내리꽂는 몸쪽 공이 일품이다.

▲대표자 = 정황기 ▲감독 = 서창기 ▲선수 = 박상규, 이원재, 이태양, 임현웅, 장민익, 주도성, 최우성, 흥승현, 강도현, 문동인, 이민우, 정건창, 김민욱, 박홍, 오철승, 이현국, 최종웅

전국대회 10차례 우승… 전통의 강호



1956년 창단한 야구부는 1977년 황금사자 기 우승을 시작으로 20여 차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우완 에이스 유경국과 좌완 에이스 이영기, 언더 박선웅 등 풍부한 투수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제가 앞장 선 타선은 고른 타격을 자랑한다. 풍부한 전국대회 경험과 끈기있는 저력을 앞세워 무등기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 = 유만석 ▲감독 = 유효국 ▲선수 = 채수웅, 배진선, 문진제, 박선웅, 유경국, 문동우, 심의정, 강경선, 김창권, 박건호, 김민재, 김유진, 황승지, 김혁, 김승보, 문우람, 강시학, 배동준, 이영기, 이종우, 김원중, 이우중, 이성규, 문의서, 신현호, 손로문, 고현우, 신승오

클린업 트리오 파워·팀워크 강점



1975년 3월 창단한 강릉고는 2007년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 뛰어난 야구 역사에도 강원 영동지역의 명문학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자리 잡았다. 에이스 최종현은 140km의 빠른 불과 제구력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고루 갖추었다. 신명철, 윤승환, 박재현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의 힘이 좋고 안정된 수비와 팀워크가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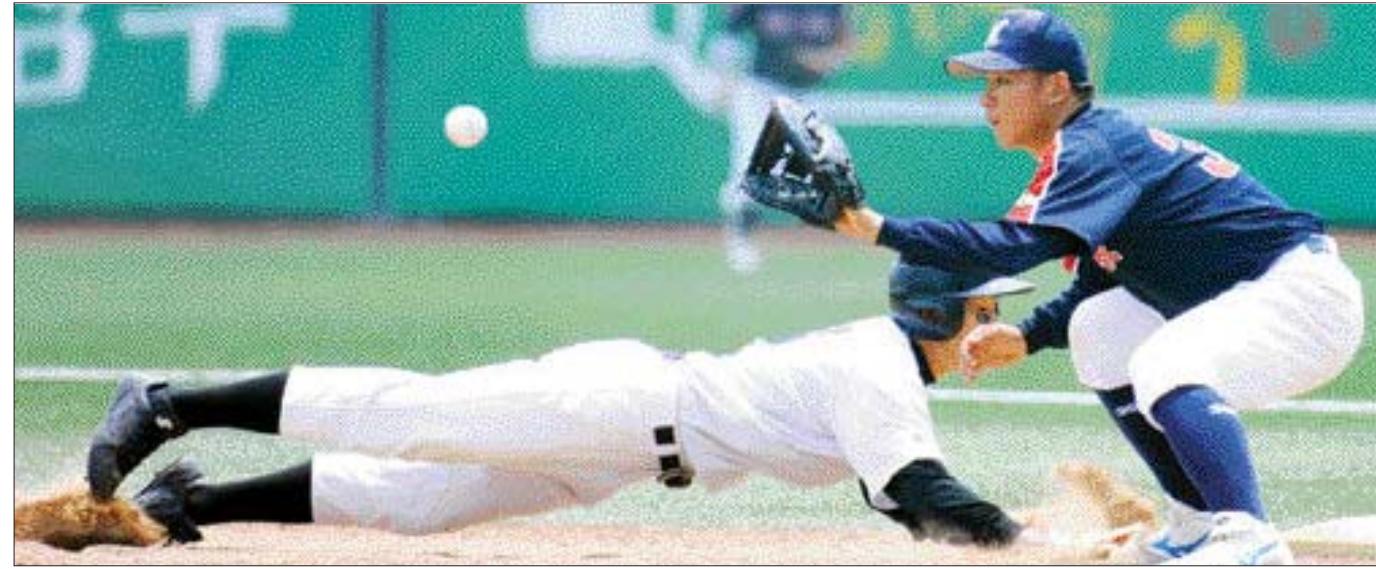
▲대표 = 함영세 ▲감독 = 학화수 ▲선수 = 신명철, 박강기, 안도균, 최종현, 강하늘, 윤승환, 김성일, 전석현, 강민수, 김군래, 김진영, 박재현, 윤승환, 손혁준, 강성완, 최현준, 최홍원, 흥영진, 이상현, 양동운, 김도우, 김용, 정성민, 김주영, 주준혁, 조수행, 유영하, 문대건, 김원웅

46년 전통 자랑… 2007년 무등기 우승



46년의 야구역사를 자랑하는 장충고는 2007년 무등기 정상에 오르며 저력을 과시했다. 커브와 슬라이더가 좋은 강승훈, 포크볼을 장착한 최영수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의 김윤식 등 마운드의 짜임새가 좋다. 공·수·주를 고루 갖춘 김건호와 최선호가 전면에 나선 고른 타선과 탄탄한 수비력,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자 = 오양환 ▲감독 = 유영준 ▲선수 = 강승훈, 최영수, 김윤식, 고대환, 김재연, 정다환, 최진웅, 윤영상, 이민호, 최우석, 장민, 서덕원, 정성민, 이지혁, 이경배, 김건호, 최용준, 서정중, 성현기, 윤경원, 민원홍, 신민기, 황윤호, 천상현, 홍성복, 곽성규, 최선호, 박준혁, 정도원, 사공엽

“무등기를 우리 품에”

제 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20개팀 프로필

1994년 광주일보가 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해 창설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올 해로 16회째를 맞는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8일간의 열전은 아마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이다. 어느 해보다 야구열풍

이 뜨거운 2009년, 무등기는 패기와 짙은 역사를 자랑하는 열정의 무대이다. 미래의 야구 스타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한국 야구의 흥겨운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번째 무등기 우승깃발을 향한 전국 20개 참가팀의 프로필과 팀 전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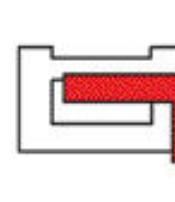
1907년 팀 창단… 고교 야구 명문 맥이어



1907년에 창단된 유수한 역사의 흐문고는 51회 청룡기 우승, 30회 대통령배 우승, 55회 황금사자기 우승 등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며 야구명문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타선의 파워가 약하나 고른 배팅 능력과 작전 구사 능력이 좋다. 위기 능력이 뛰어난 사이드암 투수 백산하와 선구안과 정확성이 뛰어난 박정우의 타격이 눈길을 끈다.

▲대표자 = 김선창 ▲감독 = 진형도 ▲선수 = 박정우, 백산하, 이형석, 이현민, 박성민, 임찬규, 김준수, 박상남, 방준영, 심규민, 윤현복, 이준안, 조용성, 박기람, 김동현, 박휘연, 조정찬, 조용희, 박민우, 박남진, 변성우, 조원빈, 전수환, 강승진, 박태원, 윤정원, 정승민, 나동민, 장종구, 강양규

동창회 후원 든든… 1학년 주축 돌풍 예고



1947년 창단된 야구부는 동창회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부산과 명성 쌓기에 나서고 있다. 1학년생을 주축으로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올 시즌 전력이 많이 약화됐지만 팀워크와 빨 빠른 중거리 타자 정재훈을 중심으로 한 기동력이 뛰어나다. 빠른 볼을 보유한 김대유와 사이드암 박재현을 마운드에 내세워 무등기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 박규찬 ▲감독 = 김민호 ▲선수 = 정재훈, 유민석, 김대유, 최성우, 김창혁, 박재현, 박은빈, 이지훈, 황대한, 문휘립, 유민엽, 진영호, 김강현, 박근우, 안민규, 고진우, 도태훈, 이민호, 박성민, 이정훈, 오세현, 김민준, 박종규, 윤희송, 김도운, 정준호, 제용진, 김진민

최초 고교 야구팀… 1976년 재창단



개성고

1895년 개교 이래 100여년 동안 간직했던 부산상업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최근 개성고 등학교로 변경했다. 1923년 창단된 야구부는 전국대회에서 10여 차례 패권을 차지하며 명문팀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45km의 빠른 볼을 구사하는 길태권과 정교한 제구력의 최영환이 전면에 나선다. 빨 빠른 욕구를 중심으로 한 수비도 막강하다.

▲대표 = 조재상 ▲감독 = 김현우 ▲선수 = 서지현, 권유식, 박준현, 우호준, 최영환(내야수), 길태권, 신승철, 정민우, 주성, 최영환(투수), 김민식, 박세준, 전병우, 강동우, 김도영, 김신우, 김태완, 김현일, 노관현, 양민호, 주하진, 하정민

전용구장 갖추고 전국대회 4회 정상



세광고

1954년 창단된 세광고는 1990년 학교 이전과 함께 야구 전용구장을 갖추고 전국대회 4회 우승과 더불어 최근 2002년 대崩기 준우승, 2007년 광주전국체전 동메달을 거두며 상승세다. 투수 김선기와 최고 145km의 직구와 슬리더를 장착해 마운드를 이끌고 있고, 우완투수 남광현과 좌완투수 김진민의 완벽한 백업 투구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 = 김시용 ▲감독 = 민문식 ▲선수 = 김진민, 김선기, 이성민, 오석근, 육진성, 이명호, 김정섭, 김태규, 정진태, 이민준, 윤정현, 오수영, 이대진, 송성근, 남광현, 최승규, 김두열, 박인동, 전명현, 박노윤, 이의중, 정두호, 박건우, 이현종, 임재광, 조정환, 이정현, 한승엽, 강명섭

최초 고교 야구팀… 1976년 재창단



경기고

19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팀을 창단한 경기고는 60년대 후반 야구단이 해체되었다가 1976년에 재창단됐다. 2000년 황금사자기 우승, 2005년 봉황기 3위, 2006년 대통령배 3위, 2008년 대통령배 준우승 등 화려한 전적으로 야구 명문의 긍지를 되찾고 있는 경기고는 올 대통령배 4강에 올랐던 기세를 발판으로 무등기 우승을 노리고 있다.

▲대표 = 이기성 ▲감독 = 강길용 ▲선수 = 조우령, 김병운, 강봉현, 백승호, 김상민, 고지원, 윤수호, 박지훈, 이정민, 강철, 송준, 박두현, 조승주, 이성근, 오윤석, 김민준, 박동현, 정명현, 흥필선, 강진성, 이정민, 조원형, 조윤성, 장현수, 김민준, 박종규, 윤희송, 김도운, 정준호, 제용진, 김진민

옛 동대문상고… 무등기 2연패 도전



청원고

19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팀을 창단한 경기고는 60년대 후반 야구단이 해체되었다가 1976년에 재창단됐다. 2000년 황금사자기 우승, 2005년 봉황기 3위, 2006년 대통령배 3위, 2008년 대통령배 준우승 등 화려한 전적으로 야구 명문의 긍지를 되찾고 있는 경기고는 올 대통령배 4강에 올랐던 기세를 발판으로 무등기 우승을 노리고 있다.

▲대표자 = 김우수 ▲감독 = 최이수 ▲선수 = 김환, 박상숙, 서균, 송석훈, 심규범, 최상현, 김민수, 김태우, 신준희, 김수현, 채하림, 이선국, 박세민, 이진영, 김도연, 오승택, 김태진, 김현우, 고상현, 흥필선, 강진성, 이정민, 조현우, 김현수, 김민준, 박종규, 윤희송, 김도운, 정준호, 배용석

1905년 창단, 전국대회 24차례 석권



인천고

1962년 동대문상고라는 이름으로 야구부를 창단한 명실상부한 야구의 명문이다. 지난해 무등기 우승을 차지했던 청원고는 우승의 주역 박상숙이 한승우·성숙한 투구로 마운드를 자지하고 있다. 매서운 슬리더와 체인지업을 보유한 신규범도 무등기 2연패에 힘을 보태다. 강거리포를 돌보이는 김도연, 정학현이 타격의 핵심만이 우망주다.

▲대표자 = 김우수 ▲감독 = 최이수 ▲선수 = 김환, 박상숙, 서균, 송석훈, 심규범, 최상현, 김민수, 김태우, 신준희, 김수현, 채하림, 이선국, 박세민, 이진영, 김도연, 오승택, 김태진, 김현우, 고상현, 흥필선, 강진성, 이정민, 조현우, 김현수, 김민준, 박종규, 윤희송, 김도운, 정준호, 배용석

김민형·이현준 고교 최강 마운드



야탑고

1997년에 창단된 야구부는 해방 이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24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지난해 미주풀기 2연패의 저력을 발판으로 2008년 영민 타격상 수상자인 주장 이창신의 빠른 볼과 승부근성이 돋보이는 타선과 기교와 언더핸드 투수 박민호가 중심이 된 마운드를 내세워 무등기 패권에 도전한다.

▲대표자 = 한인희 ▲감독 = 강희운 ▲선수 = 범성빈, 이준탁, 인진교, 강지훈, 김도우, 송기웅, 문경찬, 양형진, 박민호, 최승진, 혜재영, 김영록, 김준영, 양원혁, 이창진, 채민식, 김태우, 이정현, 이용석, 오성민, 미상우, 윤홍규, 한현우, 이승영, 박지수, 유영범, 이창석, 김탕훈, 김준영, 한정우

“2002년 무등기 우승 명예 되찾겠다”



1948년 해체됐던 야구부는 1974년 재창단 이후 1977년 제11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각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145km이상의 강속구를 보유한 안정민은 안정된 투구로 공주하고 마운드를 이끈다. 안정된 수비와 함께 고봉찬, 김기선, 고세진으로 구성된 중심타선의 힘이 뛰어나다.

▲대표 = 임재우 ▲감독 = 박승호 ▲선수 = 고세진, 고봉찬, 안승민, 박건환, 이관희, 이동훈, 이병민, 이요한, 임도경, 김설빈, 안태근, 김동훈, 박철우, 조상현, 이양우, 오석호, 육연호, 최재우, 백종한, 정승민, 정현우, 김진우, 최대호, 이호성, 우승준, 김준석, 김민규, 권준일, 이현호, 오성빈

조직력 앞세워 공격야구로 선전 다짐



부천고

1985년 창단한 부천고 야구부는 팀워크와 조직력을 앞세워 무등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에이스 박인규는 복직한 직구로 마운드를 지키고